

‘지붕킥’ 코스피...장중 첫 2400 돌파

<2402.80>

2395.66 또 최고치...경기 회복·외인 매수세 등 전인

전문가들 “연내 2600도 가능...상승장 내년까지 갈 것”

코스피 2400시대가 열렸다. 29일 코스피는 장중 2402.80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지수 2400시대를 열었다. 종가는 2395.66으로 역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2400선 등장이 시사하는 의미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확실히 알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단했다.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 정계두 지정점은 “향후에도 상승장은 이어질 것으로 진단되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수출 등 국내 경제지표 호전, 정보기술(IT)·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상장사 실적 호조, 약달러 기조 속 외국인 매수세 유입,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이 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24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새로운 주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지수가 24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는 배경에는 상장사 수익이 130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새로운 위인 이익 수준이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과거에도 코스피 상장사

이익이 20~30% 늘 때 어김없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서 “현 주가 수준도 사상 최대 기업이익이라는 기초여건(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어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며 앞으로 상승 동력도 크다”고 강조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증시가 더 강하게 탄력을 받는 듯하다”며 “최근의 약달러 기조가 그 근본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신중으로 확산하고 신중국 화폐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처럼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인 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몰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코스피가 2,400을 넘어설 것은 이미 예상했던바”라며 “지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숫자 자체로는 2,500선을 넘어갈 때 좀 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 흐름이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수는 연내에 2,500~2,600선



까지 오르고 더 길게는 내년까지 2,800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코스피가 상반기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7~8월 단기적인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강세장은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7월부터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간의 주가상승이 정당했는지 확인과

정을 거치겠다”며 “지수가 2,400에 안착한 뒤 추가 레벨업이 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거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우 센터장은 “지수가 연내에 2,600까지 올라가겠지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약할 것”이라며 “이미 기업이익 규모가 굉장히 커진 상태여서 현재 속도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95.66 (+13.10)
- ↓ 금리 (국고채 3년) 1.70% (-0.01)
- ↑ 코스닥 668.00 (+2.11)
- ↓ 환율 (USD) 1141.10원 (-2.90)

가계 이자부담 커졌다

년 3.45%...은행 대출 금리 2년3개월만에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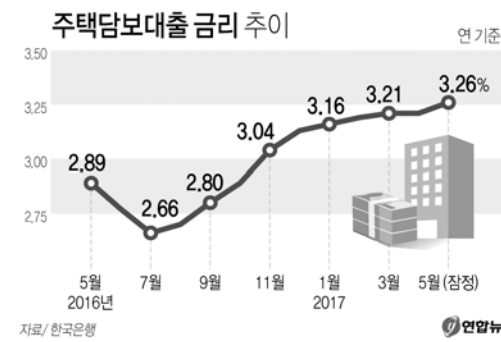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저소득층 등 취약층의 금융 이자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7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 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5%로 전월보다 0.03% 포인트(p) 올랐다.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3월 연 3.48%에서 4월 연 3.42%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5월 연 3.47%로 한 달만에 0.06%포인트 뛰면서 2015년 2월(연 3.48%)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빚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고위험가구’를 31만



5000가구(작년 3월 말 기준)로 추산했다. 또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26%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올랐고 집담대출(연 3.15%)이 0.09%포인트, 보증대출(연 3.29%)이 0.1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5년 1월(연 3.34%)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합뉴스

보해, 막걸리 ‘순희’로 쌀 소비 앞장

광주·전남 생산 우선 매입...파스퇴르 공법 도입 유통기한 늘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2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쌀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 소비 촉진을 나서기로 했다.

보해양조는 전남 등 국내산 쌀로 만든 ‘순희 막걸리’<사진> 판매를 늘려 쌀 재배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감소하는 쌀 소비량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쌀 소비량이 매년 약 2%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매년 30t에 가까운 쌀이 시장에 초과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351만t에 이른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80만t을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쌀 가격은 80kg기준 13만 원 대로 2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보해는 쌀 소비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1년 3월 ‘순희’ 막걸리를 출시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술인 막걸리를 지키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선택이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에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순희를 만들고 있다.

특히 막걸리를 저온살균해서 만드는 ‘파스퇴르 공법’을 도입해 30일 이던 막걸리의 유통기한을 1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기존 주류유통망을 활용해 ‘순희’ 막걸리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덕분에 지난 2011년 출시된 순희는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병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는 국내산 쌀 소비에 앞장서는 동시에 전통 술인 막걸리 소비도 증대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금호타이어 2년 연속

디자인 어워드 IDEA 본상

금호타이어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DEA 디자인 어워드 2017’에서 운송기기 부문 본상인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IDSA)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심미성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금호타이어가 수상한 제품은 ‘본(BON, Birth On Nature)’이다. 본은 뼈 구조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비공기압 타이어(Airless tire)다. 벌집, 나뭇잎의 세포 모양 등과 같은 자연의 비정형적 패턴 구조를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기존 비공기압 타이어는 대부분 단방향 구조라 회전 때 가해지는 하중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은 전방향이 얽혀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여러 주행조건과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번 수상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독일 레드닷, 독일 IF, 미국 IDEA)에서 모두 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9일 기아차 광주 하남공장에서 열린 소형전술차량 품질평가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군용차 평가회

기아자동차가 소형 전술차량의 납품을 앞두고 양산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회를 가졌다.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은 29일 신형 군용 소형전술차량에 대한 양산품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한 토의와 국방기술평가원과 방위사업청, 기아차 간 상호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품질평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소형전술차량 연구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미래 전장환경과 효율적인 전력운영을 위해 기동성과 생존성을 구비한 한국형 소형전술차량을 개발해왔다.

이번 평가회에 나온 기아차 신형 소형 전술차량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야전운용시험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7월 양산을 목표로 최고 품질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돌입한 것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최고 차량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의원 환영
6 743㎡ | 전문병의원 및 피부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